발간자료

• **전략 Weekly:** 빅테크 및 AI 관련 불안감은 결국 국내 증시에도 기존 주도주의 변동성 확대로 연결되는 명제. 12월초까지 높은 변동성 영역일 가능성을 상정한다면, 통신, 음식료 등 방어적 성향의 업종의 매력도가 단기적으로 높을 수 있다고 판단. 그러나 연준 통화 정책의 연속성에 대한 확신이 제고될 경우 기존 주도주의 주도력은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투자전략 조병현)

• **음식료 (Overweight):** 미국에서 K푸드 찾기: 뉴욕 유통채널 탐방기. 국내 가공식품은 미국 등지로 수출국 다변화 중이며, 해외 침투 확대는 국내 음식료 기업들의 멀티플 상향 요인으로 작용. 이에 미국 뉴욕 맨하튼의 Costco, Target, 7Eleven 등 현지 유통채널 매대 분석을 통해 K푸드의 침투 현황을 점검. 기능성 음식료품은 Trader's Joe, WholeFoods 등 채널에서 이미 하나의 독립된 카테고리로 정착. 이에 미국 시장 Functional Beverages/Foods 카테고리의 전개 양상을 분석해, 향후 국내 음식료 시장 트렌드를 전망.
(음식료 이다연)

• **자동차 (Overweight):** 팰리세이드의 HEV 미국판매 시작으로 현대차의 미국 ASP 상승구간 시작. 현대차는 지난 9월부터 미국향 HEV 수출 시작. 미드사이즈 급 SUV 시장에서는 HEV를 통해 가격인상 도모가 가능한 진영은 현대차와 Toyota 그룹이 유일.
(자동차/이차전지 유지웅)

• **아스테라시스_Not Rated:** 쿨소닉 국내 초기 판매 증가 추세 진입하며 긍정적 평가 얻는 중. 4Q25E 매출액 153억원, 영어비익 58억원으로 실적 눈높이 하방 형성 예정. FDA 획득한 쿨페이즈 1H26E 판매 개시, 쿨소닉 4Q26E 판매 개시 목표. 미국 초기 판매 통한 추정치 상향 가능성 존재.
(의료기기/화장품 박종현)

• **동아쏘시오홀딩스_BUY/15만원:** 3Q25 Review: 회복을 넘어 재평가로: 3Q25 연결 매출액 3,826억원(+7.2% YoY, +10.3% QoQ), 영업이익 333억원(+47.7 YoY, +18.3% QoQ; OPM 8.7%) 기록. 전 사업 부문 고른 성장과 배당금 수익 반영으로 탑라인 확대. 영업이익은 동아에코팩의 흑자 전환 효과로 시장 기대치 상회. 2026년 동아제약의 박카스 및 피부외용제 성장세 지속, 에스티젠바이오의 생산 확대, 용마로지스의 안정적 매출 증가, 동아에코팩 흑자 기조 강화될 전망. 지속적인 주주환원 정책과 자회사 실적 턴어라운드가 맞물리며 지주사 리레이팅 기대. 투자의견 BUY 및 적정주가 15만원 유지.
(제약/바이오 이지수)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본 자료를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자료 발간일 현재 해당 기업의 인수·합병의 주선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서 추천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 현재 해당 기업의 계열사가 아닙니다. 당사는 동 종목에 대해 자료작성일 기준 유가증권 발행(DR, CB, IPO, 시장조성 등)과 관련하여 지난 12개월간 주간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상기 명시한 사항 외에 고지해야 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습니재 해당 기업의 주식 및 주식 관련 파생상품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의 조사분석담당자는 어떠한 외부 압력이나 간섭 없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본 자료는 '나눔스퀘어'와 '아리따 글꼴'을 사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투자등급 비율

BUY : 89.4%	HOLD : 10.6%	SELL : 0.0%

투자등급 관련사항

아래 종목투자의견은 향후 12개월간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기대수익률을 의미
· BUY: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5% 이상
· HOLD: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5% 이상~ +15% 미만.
· SELL: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5% 미만.

투자 의견이 시장 상황에 따라 투자등급 기준과 일시적으로 다를 수 있음
동 조사분석자료에서 제시된 업종 투자의견은 시장 대비 업종의 초과수익률 수준에 근거한 것으로, 개별 종목에 대한 투자의견과 다를 수 있음
· Overweight: 해당 업종 수익률이 향후 12개월 동안 KOSPI 수익률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 Neutral: 해당 업종 수익률이 향후 12개월 동안 KOSPI 수익률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 Underweight: 해당 업종 수익률이 향후 12개월 동안 KOSPI 수익률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 경우
주) 업종 수익률은 위험을 감안한 수치